

만신창이로 정죄받으신 예수님(눅7B)

성경말씀: 눅22:63-23:25

유월절 만찬 후 올리브 산, 겟세마네 동산 기도, 체포되어 6차례 심문을 받음

유대인들: 1. 안나스(요18:12-13), 전직 대제사장, 2. 가야바,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마26:57),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눅22:66-71), 종교법에 의한 유죄, 사형 불가, 이에 로마 권세 이용

로마 권세: 1. 빌라도(눅23:1-4), 2. 헤롯(눅23:6-12), 3. 다시 빌라도(눅23:13-25), 사형 허가
사53:8,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 <만신창이로 정죄받으신 예수님>

아직 무죄, 군중/군인들이 그분의 얼굴을 때리고 대언하라고 하며 신성모독(63-65), 주먹질(막14:65)

나중에 이들은 가시나무 관, 자주색 옷,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조롱하고 때림(요19:1-3)

신성모독: 음행의 자식(사생아), 마귀 들린 자, 사마리아 사람(요8:48), 마귀 들려 미쳤다(요10:20)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크게 책망을 받은 그룹: 종교 지도자들, 장로, 수제사장, 서기관(66)

날이 밝자마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예수님 심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 집행 기관(사법/입법/행정)

공회는 신약에 24회, 23회가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인들의 모임(마5:22 제외)

심문의 핵심: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67, 마26:63)

주님의 말씀(67): 말해도 안 믿는다. 이미 그분의 증언은 거짓이요,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함

이들은 이미 눅20:1-8,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미 수많은 증거를 거부함

증거를 주면 줄수록 그들의 심판만 늘어남(요9:39-41).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하심(69), 사람의 아들(단7:13-14), 메시아 타이틀(특히 재림 문맥)

재림 장면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는다(시110:1; 눅20:41-43). 하나님의 그리스도

히1:3; 8:1; 10:12; 12:2; 행2:35; 7:55-56; 롬8:34; 엡1:20; 골3:1; 벧전3:22

또한 십자가 고통 이후에 영광이 있다(히12:2).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70), 주님의 대답(70),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요5:18; 19:7)

이미 명백하게 요10:30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10:36,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는 이유: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요8:45-47).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바뀐다.

주님의 말씀: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눅16:31), 5형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증언해도 안 믿음

매튜 헨리: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눈이 먼 사람은 없다. 우리는 어떤가?

이들의 심판(71): 끝났다. 이제 정죄해서 죽이는 일만 남음, 로마 권세자에게 데려감

빌라도와 예수님 1차 심문

이들이 빌라도에게 데려감(1), 요18:28, 유월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음.

이들은 심판 과정에서 이미 율법을 어김, 하나님을 정죄함.

다만 겉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려 함. 위선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통치, 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를 힘들게 하였으므로 원수처럼

여겨졌으며 그래서 결국 파면되고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학정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는 갈리굴

라에 의해 갈리아(골) 지방의 비엔나로 추방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학대함: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음(눅13:1-2),

성전에 로마 제국의 깃발을 달

예수님 심문 과정: 우유부단함, 요18-19장을 보면 7번이나 백성을 만나러 나갔다가 재판정으로 들어옴.

무죄임을 확신함 그래서 3번 무죄라고 한 뒤 십자가에 처형하게 함

1차 심문: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형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것도 유대 백성이 모이는 유월절에

재판이 시작되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냄(마27:19): 의로운 사람, 상관말라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법으로 다스리려고 정치적 이슈로 고소(2), 죄목이 신성모독에서 바뀌

이를 알아차리고 빌라도는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고 함(요18:31)
원래 신성모독은 돌로 쳐서 죽임(레24:16)
성경 기록 성취(갈3:13; 신21:23), 나무에 달려 죽어야 저주가 됨, 찢려야 함(시22:16).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이용해서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성경 기록 성취하심
사실 사람들이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행2:23)

이들의 요구: 죽이기를 원한다(요18:31).

죄목: 1.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 2. 카이사르에게 공세 반대, 3. 스스로 왕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 직접 물음(23:3)

원래 왕이면 죽여야 함, 그런데 왕의 대답(요18:36-37), 지금은 아니다.

결론: 그는 무죄이다(23:4), 14, 22, 그의 아내도 무죄(마27:19), 가롯 유다도 무죄(마27:4)

다른 세 명도 동일한 것 주장: 1. 헤롯(23:15), 2. 범죄자(눅23:40-43), 백부장(23:47)
요8:46,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헤롯과 예수님 2차 심문

백성의 주장: 갈릴리(5),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냄(6-7), 침례자 요한 참수, 예루살렘 방문(7)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였다(눅9:7-9). 이유는 23:8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부답, 결국 헤롯은 긴 옷을 입혀서 조롱하며 보냄(11), 그의 양심이 괴롭힘. 이미
침례자 요한을 죽임. 더 관여하고 싶지 않음, 공식적인 판결은 없지만 무죄(23:15)

그 결과 이 둘은 원수에서 친구가 됨: 마귀는 진실과 진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진리 편에 서면 분리, 비진리 편에 서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진리 핍박(통합, 연합, 종교)

빌라도와 예수님 3차 심문

빌라도의 말: 그는 죄가 없다(14). 헤롯도 못 찾았다(15). 죽일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징계 후 석방
(15,16), 유월절의 관례대로(17), 이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마27:18)

백성의 요구: 바라바를 놓아주라(18), 그는 범죄자(19), 강도, 살인자, 열심당원

진리를 말하면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누구라도 제거, 어찌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분을 죽일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23:21)

빌라도의 3차 확인: 그는 죄가 없다(23:22)

빌라도의 굴복(23): 인민/민중의 힘(호산나를 부르던 모든 민중은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김(23)
결국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처형하게 내줌(24-25)

끝으로 다시 한 번 무죄 확증(마27:24-25), 물을 가져다가 손을 닦고 무죄 확증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 무죄를 고백하였으나 올바른 것보다는 인기를 유지하기 원하였다.

요19:37, "진리가 무엇이나?"(37-38) 우리는 진리를 아는가?(요14:6)

예수님의 고통

요19:1-2, 채찍질, 로마의 채찍, 9가닥의 긴 가죽, 가죽에는 유리 조각, 뿔조각, 사기 조각
살점을 도려낸다. 군사가 지칠 때까지, 뼈가 드러난다. 심지어 채찍질로 죽는 자도 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음(사53:5), 아담의 죄로 인한 형벌

채찍: 인류의 모든 죄

가시 관(요19:2): 가시 길이 5-7센티미터, 우리의 생각의 죄, 손의 못: 우리가 만진 것,

발: 우리가 다닌 것, 옆구리: 우리의 감정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그리스도(사50:5-6; 52:14), 사50:7-8, 히12:1-2

우리뿐만 아니라 창조 세상이 고침을 받음

결론

사람(특히 종교인)은 온갖 수단 동원, 죄목도 바꾸고, 강도와 바꾸고, 빌라도와 헤롯의 위선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사람의 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은 더 크다"는 것(롬5:20)

어느 정도: 만신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